

“한·중남미 스타트업 성장 위한 투자·기술 지원방안 모색”

중기부-외교부, 미래협력포럼
오영주 장관 “정부, 민간협력 위한
기업 네트워킹·기술교류 계기 마련”
“자원·농산물 중심 경제협력 분야
첨단산업·디지털화 등으로 확대”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외교부와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은 외교부가 200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행사로, 올해엔 중기부가 함께 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두터운 젊은 인구를 가진 중남미와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 디지털 역량을 가진 한국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선 오 장관, 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남미에선 페루의 하비에르 곤잘레스 올라에체아 외교 장관, 온두라스 에두아르도 레이나 외교 장관, 칠레 아우로라 윌리엄스 광업 부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 장관은 정부 중심의 한·중남미 협력 관계를 민간 분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한국 정부는 다양한 차원의 민간 협력을 위해 양 지역 기업들간 밀접한 네트워킹과 기술교류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중기부는 한·중남미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와 기술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그동안 물적 지원 중심

으로 이뤄진 경제협력 방식도 기술 및 인적교류, 개발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기부는 콜롬비아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콜롬비아 등 중남미 5개국과 FTA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역간 교역 규모는 FTA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도 15배 이상 늘었다.

오 장관은 “한국과 중남미는 양측의

환경을 고려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협력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원, 농산물, 제조업 등 교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지금까지의 경제협력 분야를 앞으로는 첨단산업, 디지털화,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장관은 이날 인사말 끝을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는 뜻의 중남미 격언인 ‘신 빠리사, 페로 신 빠우사(Sin prisa pero sin pausa)’로 마무리해 양측의 견고한 협력 확대 의지를 다졌다.

이날 미래협력포럼에선 한국외대 김원호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 및 도전과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등 3개 세션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저녁엔 인근의 웨스트진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베 미래포럼에 참석’ 만찬을 주최하며 양국간 교류를 추가로 도모했다.

오 장관은 주베트남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베미래포럼은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다. 지난 2012년 제1차 포럼이 열린 이후 올해가 여섯 번째다.

오 장관은 만찬사에서 “급격한 디지털·AI 전환 시대에 양국의 미래세대가 첨단기술분야에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테크 분야 스타트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귀뚜라미 ‘바닥 환기’ 테니스 코트 오픈

고척동에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
공기조화·냉난방 시스템 등 적용
연면적 1만㎡, 국제규격 코트 13면



최첨단 환기 발전 냉난방 시스템 집약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 내부 모습. /귀뚜라미

귀뚜라미의 50년 냉난방 공기조화 기술력을 총망라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테니스 코트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

귀뚜라미그룹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최첨단 환기(공기조화), 열병합 발전,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연면적 1만㎡(3000여 평) 규모에 국제 규격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복층 구조 실내 코트 8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지난 2017년 문을 연 기존 테니스코트 실내 3면과 실외 2면을 더해 총 13면으로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바닥 환기 시스템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 ▲거꾸로 ECO 콘덴싱 중형 캐스캐이드 ▲센추리 무급유 터보냉동기 등 귀뚜라미그룹이 보유한 최첨단 환기 발전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어 사계절 쾌

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국내 최초로 바닥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다. 테니스공에서 떨어지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실내 미세먼지를 네트 아래와 벽면 바닥에 설치된 흡입구에서 신속하게 배출하고, 테니스장 상단에 설치된 환기 시스템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속 공급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은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넉넉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보유해

여유롭게 경기 관람과 휴식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최상의 접근성으로 고척 스카이드 야구장, 축구장, 풋살 경기장 등 인접 시설과 연계해 지역 문화·생활체육의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귀뚜라미는 체계적인 테니스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대표를 맡았던 김영환 감독을 중심으로 6명의 전문 강사를 영입해 ‘청소년 테니스 아카데미’ 등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국내 테니스 인구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의 인기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사계절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테니스 코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기존 크린 테니스 코트를 대폭 확장해 귀뚜라미 크린 테니스 13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X판토스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 저감 목표(2050 NET Zero)를 제시했다.

LX판토스는 특히 회사 소유·통제 범위 밖에서의 배출(Scope3)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해 공개하기 위해서다.

10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UNGC(UN Global Compact)의 4대 부문(인권·노동·환경·반부패) 10대 원칙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 등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한 제3자 검증으로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LX판토스 맹운주 경영지원담당은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변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ESG 경영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판토스는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임에도 작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UNGC 가입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B- 획득 ▲EcoVadis Committed Badge 획득 ▲물류센터 지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착즙기, 日 홈쇼핑서 6100대 ‘완판’

홈쇼핑 채널 QVC서 라방 7회 진행

휴롬 착즙기가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휴롬은 일본 최대 홈쇼핑 채널 QVC에서 휴롬 착즙기 H310(사진) 6000여대가 큰 호응을 얻으며 완판됐다고 10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 QVC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홈쇼핑 채널 중 하나로 판매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QVC는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홈쇼핑 시장이 큰 일본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채널이다.



휴롬은 지난달 28일 일본 QVC 채널 내 TSV(24시간 특집 방송)에 선정돼 라이브 방송 7회를 진행하는 동안 착즙기 H310 화이트, 블랙, 스카이블루, 사쿠라핑크 등 전 컬러 6100대가 모두 매진됐다. /김승호 기자

기보, 中企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나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MOU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시장 추가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기보는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와 ‘중소벤처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평가데이터·NICE평가정보

등 6개 유관기관과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 발굴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를 통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수요발굴 및 추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